

제426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7일(금)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외교부 소관
2.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가. 통일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3
가. 외교부 소관
2.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3
가. 통일부 소관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기 예, 간사님.

○김건 위원 위원장님, 당초 저희 회의가 10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물론 여야 간사 간의 협의 때문에 회의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착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위원들이 와 있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이것은 일단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외교부차관님 통일부차관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지금 김건 간사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실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기 예.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 간사님의 문제 제기가 있으셨는데요 차관님들도 유념해 주시고, 다만 오늘은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돼서 사실은 올라오시는 시간을 저희들이 통지하는 게 조금 늦게 통지가 돼서 지금 밑에 대기하시다가 아마 올라오시는 시간이 실무적으로 걸려서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나중에 설

명을 잘 드리고.

국회라는 데가 저희들도 이제 막 여당이 되었지만 여당·야당 필요 없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기도 하고 또 행정부와 함께 나라를 지켜 내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관님들께서 앞으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국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약간 서로 간에 어긋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위원님들도 양해하실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함께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감사합니다.

위원 선임, 위원 사보임 및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철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석기 하십시오.

○안철수 위원 지금 통일부 참석 간부 명단이라든지 한국국제협력단 참석자 명단은 여기 나와 있는데 외교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이런 실수 다시는 없도록 좀 경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외교부에서는 안철수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비례대표 승계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통지에 따라 최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되신 최혁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최혁진 위원 비례대표 승계받은 최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국회의원이 되면 외통위에서 꼭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특히 통일 분야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외교 분야에 있어서 보면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세계적인 언론에서 보더라도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대한민국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교포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저는 공공외교 분야와 ODA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관련된 정책이나 활동들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ODA 분야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대한민국이 돈을 쓰고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국격이 높아지고 국내외에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최혁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혁진 위원님께서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제가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바로 어제 26일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찰스 랭글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이 현지 시간 기준 6월 26일 17시 30분부터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가 주관하는 추모 행사장에 전시되고 있다고 주미대사관에서 알려 왔습니다.

시의적절하게 해당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김영배, 김건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보고하고 전체회의를 속개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금일 오전 중으로, 지금 시간으로부터 30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신속하고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외교부 소관

2.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가. 통일부 소관

(10시29분)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외교부1차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외교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약 605억 원이 감액된 4조 2346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 ODA 등 공적개발원조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지연 상황 등을 고려하여 2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및 PKO 분담금에 대하여 확정된 분담률을 반영하여 2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내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통일부차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총 30조 5000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17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 남북관계 상황 및 올해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 등의 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개최 일정이 2026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본 예산의 96.5%에 해당하는 66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연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하겠으나 최근 EU, 중국 등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상급 외교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본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향후 보다 면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 ODA 사업은 불용이 예상되는 280억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불용액이 742억여 원에 달하고 올해에도 상당 규모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정 삭감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6쪽 이하 대상 사업별 검토 결과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당초 과다 계상된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ODA 확대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겨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전략 수립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은 저조한 집행률을 반영하여 1700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비 추가 감액과 연동하여 예수금의 추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사업과 관련하여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가 감소하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그 이자상환액 규모도 감소하는 구조임에도 통일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을 기존 금액대로 유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전입금도 함께 조정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야 위원님들께 순서대로 한 분씩 이렇게 하고 시간은 5분 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철승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지요.

○권철승 위원 화성병 권철승입니다.

외교부 ODA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10년 동안 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최근에 수원국의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제대로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라는 이유로 지금 삭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얼마 안 된 일인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내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ODA 예산의 상당 부분에 현지 사정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조정은 사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불용 처리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조절하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년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합에 있어서는 큰 임팩트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철승 위원 신임 차관님이 외교부에서 죽 일을 하셨으니까 차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더라도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그 자체가 국가재정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 자체로 보면 이것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이 ODA 사업 하나만 보면 이번에 감액하고 다음에 하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국가 살림 전체로 보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현지에서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보다 더 면밀하게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보시고 그냥 예산 잡는 데만 급급해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많이 잡는 것,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는 쪽으로 예산 지휘를 향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리고 PKO 예산, 우리나라 분담률이 2.574%에서 2.349%로 하향 조정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난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분담률 관련해서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GDP, GNI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의 분담금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조정에 따른 것을 저희가 예상해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언제 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결정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뒤에 다른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분담률 조정이 결정이 난 게 언제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허락하시면 국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위원님, 국제기구 국장입니다.

분담률은 작년 말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권철승 위원 작년 말이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기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다음 해에 결정될 분담률을 조금 추정해서, 잡아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최종 확정되는 예산율은 그 이후 시점에서 확정이 돼서 조금씩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분담률 조정이 있게 되면 매년 이 분담률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추정으로 해 오셨나요?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예, 분담률이 보통 3년씩……

○권철승 위원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예, 3년에 한 번씩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좀 추산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는데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보다는 좀 늦게 유엔에서 최종적인 분담률이 확정되는데 그 다음에 실제 금액을 보면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김남중 차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보면서 저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3월 달에 북한 어민 2명 와서 지금 저희가 생활하고 있지요, 실제로? 북으로 못 가고 있고 이번에 5월 달에 또 4명 왔지요? 총 6명인데.

법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위라든가 무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북한이탈주민은 아니니까—어떻게 보면 모든 게 비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를 들면 그분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통일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다 파악을 못 하셨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가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허락하시면……

○김기웅 위원 아니, 통일부차관이……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매뉴얼이나 법률에 지금 미비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의 이산가족 관련 예산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산가족 예산이 맞나요, 쓰는 게?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위로 행사 같은 데 쓰는 예산이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법적 지위가 이게 사실은 아주 모호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이산가족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도 아니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어쨌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전에도 요청을 한 번 드렸는데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예전의 비전향 장기수처럼 이게 금방 끝나면 좋은데 10년 20년 갈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보면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좀 비어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또 외교부는 그 관련된 예산은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 짧은 기간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분들과 관련된 예산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느 항목에 반영할지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인 것, 혹은 대응 매뉴얼이 됐든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반영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적 미비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그런 예산 관련된 사항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위원입니다.

외교부차관님, 이 예산 중에 감액한 것 중에 하나가 제1차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가 2026년으로 개최가 순연됨에 따라서 예산 66억 원이 삭감됐네요. 이렇게 국회에 올렸네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제1차고 중양아시아가 그전으로 치면 신북방 국가에 외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인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아마 2024년, 작년 6월 달에 당시 대통령께서 그 지역에 카자흐스탄 가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제안하고 또 그쪽에서 5개국 다 이걸 하자고 동의했던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금년에, 2025년에 1차를 하는 걸로 선언한 건데, 언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연중 저희가……

○윤후덕 위원 2025년에 제1차 정상회의를 하려는 거였고, 제가 예상한 것은 5월이나 6월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2월로……

○윤후덕 위원 12월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12월.

○윤후덕 위원 그런데 12월이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순연을 했어요, 내년으로?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특정 국가가 지금 자국 주최의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차관님, 다른 나라의 사정이 있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정상회의 개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어요. 우리 정부에 사정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작년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생기고 그리고 또 대통령 파면 그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정치 일정 때문에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함께 다……

○윤후덕 위원 그런 점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왜, 12월 정도면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내년으로 순연한다고 외교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요? 언제 결정한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상대국 입장이 라든가 또 저희 내부의 일정이라든가 해서 가용 일자를 금년 내에는 제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미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 5개국에 대해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해서 특사라도 좀 보내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조치를 하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존경하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통일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통일부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밖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밖에서도 지금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안철수 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김정은 적대적인 2국가론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런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국정기획위원회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헌법 4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먼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를, 여러 가지로 고려를 또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헌법가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접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간사님은 나중에 하시고……

○**이재강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석기** 이재강 위원님 하세요.

○이재강 위원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이재강 위원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외교부 ODA 사업 중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감액이 반영됐습니다. 감액된 국가가 베트남·피지·나이지리아·탄자니아 4곳뿐인데요.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저희가 감액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던 미얀마·스리랑카·캄보디아·튀르키예·파키스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감액 기준이 무엇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각국 사정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가 해서 주재국의 거버넌스 체계 변화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순연이 되었고요. 또 아프리카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 형성·추진 여건 자체를 저희가 고려했었습니다. 탄자니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그 현장에서 좀 순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예산 투입 시점을 조금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지금 현지 상황이라 하셨지만 오히려 현지 정세가 불안하고 집행 성과도 미진했던 나라들이 감액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혹시 정무적 판단으로 걸러진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일관된 기준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상외교를 계기로 ODA 신규 약속이 굉장히 많았던 것 아시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이재강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 중 일부는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현지 수요조사도 부족했고 성과 관리도 사실상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측근과 연계된 외교 일정의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제대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나름대로 다 내부적인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정말로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감액하는지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외교부 ODA 예산은 단순한 개발협력 차원을 넘어서 우리 외교 전략과 국가 위상까지 연결·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 ODA, 전략적 ODA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그에 맞는 기준과 평가체계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정 의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예산집행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략적인 측면과 성과 관리 측면을 더, 또 KOICA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외교 기조를 실용외교·균형외교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이재강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전임 정부 시절 관성적으로 유지돼 온 진영 중심의 분담금 항목들도 이제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추경안을 보면 유엔 정

규 예산 및 PKO 분담금은 감액되었는데 다른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은 그대로입니다. 유엔 분담금은 우리 정부가 당초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보다 실제 대한민국 분담률이 낮게 책정돼서 미집행될 금액만큼 깎았다고 하고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작년 예산심사에서 감액을 요청한 해당 기구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내부적 검토를 철저히 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ODA의 효과성 문제가 미국이나 이런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도 그런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어디에 ODA가 집중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KOICA와 저희 관련 개발협력 부서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지금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항목의 효과성 평가나 사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국제기구 분담금이 총액 1조 6000억이고 그중 외교부와 KOICA만으로 전체 예산 64%를 씁니다. 부처 간의 중복이나 기금 집행의 효과성을 지적받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 검증 가능한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리가 또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꼭 좀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외교부 박윤주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가상중간선 이서 해역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해양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던 중에 중국 해경 함정 2척하고 고무보트 3척 등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차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간략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략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해수부가 제출한 상황일지에 따르면 우리 해경은 경비함정 1척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중국 해경의 압도적 대응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도발에 대해 우리는 왜 비례적인 대응을 못 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경은 해경 경비함 2척이 즉응 태세를 유지 중이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가 투입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정말 즉응 태세라면 우리 해양 주권이 침해당하는 순간에도 왜 그런 조치를, 출동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위원님께 상세 상황을 파악해서 국제법적인 문제하고도 함께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유용원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관련 과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PPT 세 번째 띄워 주세요.

지금 PPT의 왼쪽은 우리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등에 설치한 해양부이 위치고요 오른쪽이 중국이 설치한 해양부이 13곳의 구체적인 위치입니다. 우리가 설치한 해양부이 위치는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 공개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치한 해양부이 위치를 보시면 서해 전역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염분·풍향·풍속 등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핏 봐도 웬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남 해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 해상에 총 13개 중의 9개, 70%가 설치돼 있고요. 동경 123도에서 124도 사이에 설치된 해양부이는 7개 그러니까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말 중국이 주장하듯이 과학적인 목적이라면 해양부이는 우리가 설치한 것처럼 해역 전반에 균형 있게 설치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설치한 위치를 보시면 중국이 주장한 관측이 아닌 통제 또 해양 연구보다는 해양 패권을 노린, 해양 패권을 노린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핵심 이익을 선언하고 인공섬을 설치해 군사기지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서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중국의 서해공정은 더 이상 조용한 침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노골적인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께서 밝히셨지만 아직까지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우리 해양 주권에 있어서도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 합동하에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해 해역에 있는 일은 저희가 주권 수호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비례성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김건 간사님 하시지요.

○김건 위원 국민의힘 김건입니다.

먼저 박윤주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호관세 90일 마감에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7월 8일인데, 벌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세 25% 맞아서 한 달에 한 8000억씩 나가고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

○**김건 위원** 그러면 7월 8일 날 관세를 맞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이 될 거라는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여한구 본부장은 가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라는 말 더 이상 안 쓴다, 빨리 타결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 만약 7월 8일까지 타결이 안 되고 관세를 얻어맞게 되면 상당한 정도 우리 기업에 타격이 갈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통상본부장님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그쪽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 7월 8일이라는 기한을 맞추어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NATO에서 좋은 기회를 날려 버렸는데, 그래서 8월까지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위성락 실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개최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통상 문제와 관련한 그런 협의에 있어서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보텀업하는 방식으로 실무적으로 미국 관련 부처와 차곡차곡 협의를 쌓아 가는 방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기한을 맞추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보텀업으로 해 가지고 굳이 정상회담이 없어도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님,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하에 다 소통이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지금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저희가 서로 간에 제안을 교환하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부에 보고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보텀업 방식으로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 실무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요구하고 어떤 타결의 길로 안 간다고 그게 가장 고충이라고 하던데, 그게 보텀업 갖고 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특히 통상과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을 미 측에서도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단단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NATO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NATO 정상회의 참석해서 화란의 야당 대표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NATO 정상회담을 가셨으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가정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여건 자체는 그렇게 정식 회담을 갖기에는 수월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네덜란드 야당 대표도 만난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 못 만나나요? 그런 대답인가요, 지금?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미 측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한 상황에 따른 판단입니다, 위원님.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인즉슨 미국과 소통해 보는데 뭐가 확정이 안 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으니까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안 가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어떤 단일 요소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기보다는 국정 전반과 외교를 따져서 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그 종합적 판단을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일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광주 가셨지 않습니까? 광주 가시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동 사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혹시 지금 우리 김영배 간사님이 마지막 순서인데……

○김준형 위원 저도, 저도……

○위원장 김석기 아니, 잠깐만요.

○김영배 위원 좀 있네요.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다시 다시……

○김영배 위원 제가 하고 그러면 나머지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석기 예, 그러면 김영배 간사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차관님, 조금 전에 김건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는데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IP4 국가 중에 일본하고 호주하고 한국, 세 나라가 참석을 안 하고 뉴질랜드만 참석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뉴질랜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만나지 못…… 정상회담……

○김영배 위원 못 만났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IP4 국가들이 초청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번에 NATO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뭐였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NATO 회의의 안건은 여러 가지, 방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김영배 위원 그중에 또 방위비 5% 증액 이게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였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특히 미 측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 NATO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동맹을 앞으로 맺는다 이렇게 성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독일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방위비 5%를, 어떤 나라는 2035년까지, 어떤 나라는 그 뒤까지, 조금 빠른 데도 있고, 방위비 5%를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들을 한 나라들이 있고 스페인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스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독일만 해도 지금 보니까 2029년까지 GDP의 3.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할 정도로 국방비를 5%까지 올리는 게 만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금 2.4% 정도 되는데, 맞지요? 그러면 GDP의 2.4%이면서 60조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NATO 회의에 가서 갑자기 청구서를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면 5% 방위비가, GDP의 5%면 130조쯤 되거든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60조인 예산을 두 배를 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영배 위원 이 6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매년 지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고 대한민국이 불참을 결정하고 나서 일본도 호주도 불참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 조절이나 혹은 아니면 다양한 가능성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번에 NATO를 갔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GDP의 5% 정도까지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릴 경우에 소위 방산 산업의 엄청난 기회가 한국에게 열릴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위성락 실장도 제가 알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정상들 혹은 실무자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방산과 관련된 상당한, 아주 전망이 밝은 말씀들을 나누고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안보실장께서 가셔서 NATO 국가들 또 그다음에 IP4라고 불리는 다른 국가들과 다 광범위하게 접촉을 하셨고 방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방산 협의 자체를 이렇게 제도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위성락 실장께서 국민의힘을 비롯한—여당은 물론이고요—여야 지도부나 핵심부들에게 이런 성과들이나 혹은 아니면 중요한 참고점 이런 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안심도 가져와야 되지만 또 관련해서 정

책이나 이런 게 우리 방산 산업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하는 데 여야가 함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핵심 참모들이 그런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정부의 외교도 초당적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저는 제 개인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방안에 국익을 위해서 함께 여야가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예산 하기 전에 좀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백악관 대변인의 7월 8일에 대한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7월 8일이 유예 마지막 날이지요?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인데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또 연기하는 겁니다. 저는 늦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영국하고 중국 빼고는 아무도 협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빨리 만나서…… 저는 NATO를 갔더라도, 하더라도 약식 회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간 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확인한 것이 결국 공조인데요. 비슷한 입장에 있는 호주나 일본과 같이 움직였다는 것은 저는 외교적 성과고 향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좀 천천히 그리고 다른 비슷한 처지와 연대하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일단 한미 간에 좀 긴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어야겠고 단지 저희가 단순히 어떤 상황을 지연시킴으로써 한다고 오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저는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연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아시아 정상회담 밀린 게 무슨 이유입니까, 정확하게? 그냥 일시만 밀린 겁니까, 다시 말해서 내년에 정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왜 연기된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는 국내 사정과……

○김준형 위원 어느 국내 사정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

○김준형 위원 우리 국내 사정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우리 국내 사정도 있고 상대방의 또 사정……

○김준형 위원 저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게 한-중아시아 협력 포럼에서 정상회담으로 격상된 것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우리가 그때 K-실크로드라고, 들어 보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준형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ODA 협력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이나 국력에 맞다고 보지만 윤석열 3년 동안 한 것은 턱도 없는 ODA 증가고요, 방향성도 없고 매우 급조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까지 있는, 여기에 부정부패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먼저 이것을 사태 조사를, 이 분석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외교부도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MB 때의 자원외교도 그렇고 제가 엑스포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 외교부가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외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관 설치에 대한 약속도 문제지만 그것을 시한 내에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되는 것이고 양국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지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그 나라에서는 이미 당시에 갈 때 김건희 문제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겼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외교부 내에서 이것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지금 연기된 것으로 얼버무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대책이 있으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중앙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가급적…… 지금 입장은 내년에 한번 다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DA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업 자체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새로 차관님 되신 분한테 제가 약간 압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단순히 미세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ODA 예산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커진 위상만큼 국제사회에의 기여는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ODA 예산은 너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게 분명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R&D 예산을 대폭, 몇 조 삭감하면서 그 예산을 많이 이쪽에 편성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의 준비상황이나 또는 상대국과의 협의에 비춰서도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홍기원 위원** 그리고 한-중앙아 정상회담이 올해 개최되려고 하다가 국내 사정이나 또는 중앙아 나라 때문에 연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큰 신뢰를 손상시킨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중앙아와의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TO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서부터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국내 정치 상황이나 또는 산

적한 현안을 봤을 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G7 정상회담 참석한 게 대통령 취임하고 12일 만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임기를 시작했는데 12일 만에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또 10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계엄 내란행위로 인해서 6개월간 정상외교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특히 G7 자체가 서방의 7개국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의 주요 의제가 정치·경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중단됐던 정상외교도 정상화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10개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과 경제협력 등의 기반을 강화한 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려면 G7 회담에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다시 또 가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NATO 회원국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NATO 정상회의는 G7과는 달리 군사동맹 성격의 회의이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추경 시정연설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여러 부처의 장관후보들도 선임해서 발표했구요.

만약에 NATO 정상회담을 가게 됐다면 추경 시정연설도 당연히 상당히 밀렸을 것이고 또 각료 인선도 상당히 지연됐을 것이고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NATO 정상회담 가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종합적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보고 또 제가…… 다른 국가에서, 지금 NATO에 참석하지 못한, 정상급이 참석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그런 국가에서 이 NATO의 문제가 약간의, 이 참석의 문제가 이렇게 큰 사안으로 또 국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인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NATO와의 어떤 협력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산 분야도 있고 또 안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주문 그런 것은 겹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이시바 총리가 NATO 정상회담에 가지 않는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것도 참고했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 누구나, 일본도 다 NATO 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은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도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오늘 차관님들 처음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차관님들에게 질타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뜻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될 수 있으면 9월 달 정도까지 한 3개월은 다 정리하고 일을 찾아 나가는 시간을 주는 게 대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중간에라도 지적을 할 수 있는 야당의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저는 NATO 참석 안 한 게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6·25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삼팔선을 넘었을 때 러시아가 불참하는 바람에 유엔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유엔군이 한국을 돕게 됐는데 미국은 물론이고 NATO의 회원국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와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도와줬어요. 역사적인 것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무리하게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손해 볼까 봐 제가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협상 중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 바로 그냥 관세를 배나 올리겠다 이렇게 보복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마땅히 미국 밖에서 조선업을, 미국의 군함들을 수리하고 우리한테 실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소문에 의하면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근거는 없을 수 있지만 걱정됩니다.

더 큰 것은 폴란드 같은 나라가 8조를 샀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탱크나 이런 것을 샀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우리가, 위성국 위원님이 가서 안보실장으로서 굉장히 잘하셨겠지만 대통령이 가서 세일즈를, 앞으로 5%씩 다 올리는데 여기에 우리 실익을 좀 챙겨야 돼요. 그것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로 있으면서 러시아 환자를 보고 우리 의료원의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제 개인 수입은 아니지만. 러시아 환자를 해외…… 러시아가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해요. 우리도 러시아를 필요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하고는 엄청 가깝게 지내야 되고 북쪽이 러시아하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러시아 정책에 아주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북쪽은 인도적인 지원을 제가 아마—이제는 우리가 야당이지요—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일 많이 해 왔던, 의사로서 결핵 퇴치하고 했는데 북쪽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단호한,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쪽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적인 지원, 그래서 굉장히 새 정부 출발하고 제일 기분 좋았던 것은 우리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하고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잘해 나갈 수 있는, 국가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쪽에 있는 국민은 잘 챙겨서 우리가 올바른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통일부차관님과 자주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교는 국익을 따지고 통일부는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비판보다는 여기 외교통일위원회의 가장 매력이 여야가 없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챙겨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조용히 같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외교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고 살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대통령실에서 기재부·외교부 ODA 관련 사업 개선 TF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교부가 최종 보고서에 올린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체계적인 계획 및 전략 수립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향후 질적 성장을 포함한 정교하고 내실 있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제 기억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차관님, 이번에는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특히 존경하는 이재강 위원님 또 김준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캄보디아 ODA 편중 문제가 계속 여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 1789억 원이 25년도에 4353억 원, 약 143%. 중점협력국 중에서 최고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또 전례 없이 민간협력 전대차관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민간협력 전대차관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시고요.

당시에 우연일지 모르지만 같은 해에 김건희 씨의 빈곤 포르노 문제가 여론에서 크게 터졌어요. 국격이 실추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일부 언론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김건희 씨가 외교에, 이런 ODA 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언론 기사만 봤습니다.

○최혁진 위원 저는 당시에 우리 외교 주재원을 통해서 ODA 관련 일부 국가에서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현장에 오서 가지고 공식 의전 라인이 아니라 비선들을 데리고 와서 각종 행사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기획하고 해서 우리 외교부의 주재원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ODA 사업 개선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비위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다음번 국정감사 때는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NATO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보려고 그러는데요.

차관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NATO 정상회의에 모두 불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일단 NATO 협력이 본격화된 게, 거기서도 저희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런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씀이고.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NATO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잘 찾아봐도 보이는 게 없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여러 가지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방산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제고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최혁진 위원 NATO 회의에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꼭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필요하면 갈 수도 있고 국내 사정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최혁진 위원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 이번에 NATO 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굉장히 강한 이슈였는데 만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했으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보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NATO 회원국들 다 방위비 증액에 나서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압력을 가할 것 같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을지 잘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어쨌든 그 정도 예측은 하셔야 외교부가 전략적인 접근을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NATO 회의에 참석 안 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신의 한 수의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외교부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울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NATO 정상회의 참석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 때 처음으로 초청을 받은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초청 아마…… 예, 그럴 것으로……

○김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초청받은 바가 없으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략하면서부터 유럽의 안보 문제가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하고 직결된다, 실제로 북한이 거기에 파병도 했고 얼마 전에 또다시 추가 파병한다고도 할 만큼 유럽의 안보 문제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NATO 정상회의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인데,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NATO 측에서 유럽의 안보 문제와 저희를 포함한 인태지역과의 안보가 연계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유럽 잔치에 왜 가느냐’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인식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번 NATO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도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군비 증강이 되고 있고 이런 군사력 확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어서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안보에 대한 영향은 유럽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래서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인 IP4라고 하는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지금 NATO 측은 가지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NATO 정상회의는 꼭 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여러 가지 국내 현안, 복잡하고 긴급한 현안이 뭐가 있었지요? 저는 지금 긴급한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각 지역을 순방을 하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역용 선심 공약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지역에 대한 민심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형태로 지역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긴급한 현안 아니고는 다른 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긴급한 현안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중동 정세에 따라서 국내외 여러 가지 유가 변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김기현 위원** ‘중동 정세’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불참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7시간 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중동 정세를 도대체 제대로 파악을 전혀 못 한 거지요. 유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유가 다시 정상화돼 있지요. 바로 정상화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세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른몇 시간 후에 휴전하고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는 시점에.

그리고 거기 트럼프는 NATO에 참석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기에 얼굴도 안 내밀더라, 심지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잘하신 것인데 거기에서 일본 총리는 양자회담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더라, 물론 중동 사태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또 이해한다 치지요. 그런데 이번 NATO 정상회의는 당연히 가서 양자회담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회피했느냐. 회피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계속 회피하지요. 안 만나서 해결이 됩니까? 만나야 해결이 되지. 되든 안 되든 만나야 해결이 되지, 안 만나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만나야 되는 것 맞지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먼저 중동 정세……

○**김기현 위원** 아니, 만나야 되는 것은 맞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만나

야 되는 것 맞지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 것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협력 의지를 그쪽에 표명을 했고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는 입장이고요.

○김기현 위원 우리 당국 내부에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미국이 이란 공습에 대해서 지지를 요구하고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재명 정부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없는 얘기 왜 나와요? 북한과 중국,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이한 외교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저희가……

○김기현 위원 차관님 의견을 묻습니다.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이한 외교냐라고 차관님 의견을 묻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는 일도양단식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현 위원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는데, 소신과 철학 없이 그렇게 어떻게…… 아니,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이한 외교가 아닌 것이 맞지, 그것마저도 답변을 못 하시면서 차관님이 무슨 역할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차관쫘 댔으면 정무적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오늘이 원래 아직 장관께서 임명이, 신임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되셔서, 오늘은 추경예산 사업안에 대한 심의의 자리입니다. 그런 데서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보다는 다른 현안이 마치 정치적 쟁점인 것처럼 돼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치 않고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NATO 정상회의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차관님,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사실은 NATO 국가들뿐만 아니라 IP4 국가 참석 문제가 관심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다음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다 불참하기로 했지요? 그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번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 때문에 거기도 따라서 다 안 온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다 자국의 판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호주 총리의 경우는 트럼프와의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서 그런 데서 이번 IP4 국가로서의 NATO 참석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도 일본 판단이 또 있었던 거지요. 그때 일본도 역시, 중동 정세가 당시에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 아닙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NATO 정상회의에 올지 안 올지 이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었고 과연 거기서 의미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나 내지는 IP4 국가들과의 다자 정상회의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안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안 가서 일본도 안 오고 호주도 안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종속된 국가도 아니잖아요. 자국적 판단을 가지고 안 간 겁니다. 말 그대로 자국의 사정 그리고 글로벌 국제환경 그리고 외교적 맥락, 실익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IP4 국가들이 뉴질랜드 빼고는 사실 주요한 국가들이 다 참석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핵심인 거지요. 마치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NATO 정상회의 참가 안 한 것에 대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 또는 회피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지는 자꾸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옳지 않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글로벌 통상 협상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미국이 제시한,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월 9일인데 그게 과연 9일 각국들이 모두, 수십 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얹혀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들을 우리가 같이 잘 살펴보면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지하게 진행을 하면서 연계된 동향들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국익에 가장 맞는 최대한의 옵션과 환경을 만드는 것인가 이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양자회담을 아주 내실 있고 치밀하게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NATO에 갔냐, 안 갔냐 이렇게 지금 저는 허송세월할 그런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통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차관님, 아까 인요한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것 진짜 새롭게 남북관계가 가능한 인도적 교류와 지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봤을 때.

통일부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빨리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그런 인도적 지원 문제는 통일부가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하는 데서 잘 관리해야 될 게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양 정부가 할 수 있는 확성기 조치는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에 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도 작년 11월 28일부로 다 중단되었어요. 그런

데 지난 6월 14일 날 국내 민간단체가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일부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수수방관해 왔었는데 이제는 통일부가 좀 더 주무부처로서 군이나 경찰·지자체 이런 유관기관들과 공조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평화를 관리해야 된다.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사실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게 조금 이례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관 두 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직에 계시고 저는 나오시길 바랐고 특히 현안 가운데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분명히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해법들 결국은 새 정부가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내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유감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NATO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굳이 NATO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당선되신 지 3주 갓 지났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G7 소화한 것만 해도 녹록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아마 NATO까지 갔었다면 아마 야당의 어떤 의원님들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에 연연하다가 결국은 국내 상황들 나 몰라라 한다라는 비판을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가능한 비판들을 여러 관점에서 하시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관성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 알면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실제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당장 만나’ 해 가지고 만난다고 해서 그걸로 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에서 만들어 내야 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서 성과로 가져올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쉽표 하나, 점 하나까지도 우리의 치밀한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마련된 이후에 가장 조속히 해결된다면 그것은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당장 만나’, 아닙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가운데 NATO 참석하지 않은 이시바 총리 측 발로 뉴스가 나온 것들, 한국을 예로 들었다는 것 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일 국교 수교 60주년 관련한 도쿄에서 있었던 리셉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회로 일본 외교부에 있는 인도퍼시픽 관련해서 그리고 또 NATO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귀 기울였었는데요.

인도퍼시픽 전략이 결국은 일본의 아이디어로 나와서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그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내 인접 국가들의 지금 국제 외교에서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안

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는 일본의 외교부 관료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 며칠 뒤에 이시바 총리 측으로부터 NATO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 측의 불참을 예로 든 것을 보고서 이러한 기조가 결코 개인적 의견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60주년 리셉션에, 한국 측에서 열린 일본 대사관 리셉션에 부득이하게 우리 한국 대통령께서는 G7 참석차 참석을 못 하셨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상호주의의 관례를 넘어서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을 했다는 측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라든지 스가 총리라든지 기존의 총리들이 네 분씩이나 참석을 했었고 소위 서열 몇 위의 장관들까지도 그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짧았지만 G7에서의 우리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그리고 또 모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이어야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60주년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양국 정부가 원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모색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위원 그리고 제2차관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양자관계 중심, 4강 중심의 외교로 사실 다자 측면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현장의 경험들 그리고 또 전문적인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NATO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진행될 여러 가지 다자외교 무대의 장에서 한국의 가능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 세계적 시선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유사 입장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도-태평양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심화를 하는 그런 원칙은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에 맞게 그만큼 라틴이나 아프리카와 같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들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맞춤형으로 우리 국익에 기반을 해서 계속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다자외교 이 부분에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대체토론 추가로 하실 분 계시는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 간사님.

필요하면 여야 한 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김건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특히 김준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외교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은 계속 지연시킨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적절한 타이밍을 지금처럼 하면 놓칠까 봐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피해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타이밍을 잡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부담을 덜면서 한미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그다음에 나아가서 NATO 정상회의, NATO하고 IP4가 같이 하는 정상회의는 우리한테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만약 그것을 대통령께서 가서서 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조금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피하고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걸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산업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슷한 형편에 놓인 게 EU하고 일본하고 우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 결국은 우리가 제일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쉬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데 EU하고 일본하고 먼저 타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관심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 기간 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잘 보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통일부차관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통일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헌법적 가치인 이유는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민족.

그다음에 우리는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 우리 남북 간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중간의 어떤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북한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북한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협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대화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최근에 명칭 변경 관련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칭 변경 관련된 부분이 꼭 북한의 두 국가론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상대로 말씀을,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상황이나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되지 않게 좀 잘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민주당 측……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김건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안철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종료한 후에 16시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경과에 따라서 전체회의 속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 행정실을 통해 공지해 드릴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오전에 상정하고 조금 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글로벌 연수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수생 선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1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

책수립 및 추진에 편성된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예산 2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재외공관 직무파견을 위한 인건비 등 5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29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 소관 부대의견으로 우크라이나전쟁 피난 고려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심사 시간에도 불구하고 안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외교부차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

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윤주 외교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결심사소위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교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동참하기 위해 외교부 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중 통일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2회 통일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우리 경기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을 조속히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동포청 소관 국내 피난 동포 지원 등 시급한 5개 사업의 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동포청은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포청 주재관을 주요 재외공관에 조속히 파견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주 외교부차관님, 김남중 통일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덕 청장님,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칠승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안철수 유용원 윤후덕
이재강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최혁진 홍기원

○청가 위원(2인)

이용선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조정기획관 문인석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강영신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북한정보협력관 추석용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소봉석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비고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2025. 6. 12.	2025. 6. 13.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함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유용원	윤상현	국민의힘	2025. 6. 20.
윤상현	유용원		2025. 6. 24.

○의안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9)

6월 13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7)

6월 16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6)

이상 2건 6월 17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1)

6월 18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9)

6월 19일 회부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4)

이상 2건 6월 23일 회부됨

○진정서 송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 고
외교부예규 제291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2025.06.23.	2025.06.24.	
외교부예규 제292호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2025.06.26.	2025.06.26.	
외교부훈령 제244호	외교부 개정 훈령 및 예규 제출(공직자 및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2025.06.26.	2025.06.26.	
대통령령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24.	
외교부령입법예고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6.24.	
통일부령 제13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6.13.	2025.06.16.	
통일부훈령 제717호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5.06.24.	2025.06.24.	
재외동포청훈령 제48호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2025.06.23.	
재외동포청예규 제6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2025.06.05.	2025.06.23.	
재외동포청예규 제7호	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2025.06.05.	2025.06.23.	